

바 레 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760km ²	GDP	318억 달러 (2016년)
인구	1.32백만 명 (2016년)	1인당 GDP	24,119달러 (2016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Bahraini Dinar (BD)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0.38 (달러 페그제)

- 바레인은 36개 도서로 구성된, 한반도 면적의 0.3%에 불과한 760km²의 영토(강화도의 2배)를 지닌 걸프 지역의 소국(小國)임. 걸프협력위원회 (GCC) 회원국들 중 원유 생산량이 가장 적어 원유를 인근 국가로부터 수입 후 이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음.
- 1960년대부터 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석유화학 외에 금융업, 관광업, 제조업 등도 핵심 산업으로 발전하였음.
- 중동 지역의 군사적 요충지로 서방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미국은 바레인에 5개의 해군기지를 두고 있으며, 영국도 걸프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해 해군기지 신설을 계획하고 있음.
- 법률상으로는 입헌군주국이나, 왕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음. 수니파인 al-Khalifa 가문이 200년 이상 통치해 오고 있으며, Hamad 現국왕이 1999년 즉위 후 현재까지 통치하고 있음.
- 전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아파에 대한 차별, 불평등 등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반정부 움직임으로 상황이 악화될 시 시위(테러) 진압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 주요국들의 전폭적 군사·경찰 지원이 예상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e	2017 ^f
경제성장률	5.7	4.5	2.8	2.1	1.8
소비자물가상승률	3.3	2.7	1.8	3.7	3.0
재정수지 / GDP	-5.4	-5.8	-14.8	-14.7	-11.7

자료: IMF, EIU

□ 저유가 지속,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낮은 경제성장률 지속

- 바레인은 2011년 반정부 시위 진압* 이후 유가 상승, 금융산업 성장 등으로 2012~14년 평균 4.5%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14년 이후의 저유가 추세와 2011년 이후의 알루미늄** 수출가격 폭락 등으로 2016년 경제성장률은 전년(2.9%) 대비 하락한 2.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튀니지,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 성공의 영향을 받아 2011년 2월 왕실(수니파)의 권력독점 구도 혁파와 시아파에 대한 각종 차별 철폐를 요구

** 알루미늄 가격 추이(달러/톤) : 2,395('11) → 1,845('13) → 1,605('16)

- 유가하락 추세 반전을 위한 산유국들의 원유생산량 감축 합의('16.12월)에 따른 원유생산 감소 등으로 인해 2017년 경제성장률은 2%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비석유 부문의 대형 프로젝트 및 사회 인프라 확충공사(주택, 상하수도, 교통, 전력 등) 확대 등으로 향후 경제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국영 알루미늄 기업 Alba의 생산능력이 공장 증설로 2019년 이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입찰이 진행 중인 시트라 정유고도화 프로젝트(생산능력 10만 bpd) 건설이 2020년 완공될 예정임.

□ 보조금 축소,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의 연료 보조금 축소에 따른 휘발유·디젤 가격 60% 인상('16.1월),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 보조금 축소('16.4월) 등의 영향으로 전년(1.8%) 대비 상승한 3.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에는 미 달러화 강세 전망으로 수입물가 하락*이 예상되나, 공공요금 추가 인상 및 보조금 축소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대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바레인디나르(BD)는 1981년 이후 미 달러화에 peg(고정환율제)되어, 미 달러화 강세는 수입물가 하락 요인 중 하나임.

□ 유가하락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 지속

- 석유·가스 관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로 걸프협력위원회(GCC)* 회원국들 중 최저 수준이나, 정부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타 GCC 회원국들처럼 80% 이상으로 재정의 석유의존도가 높음.

* 1981년 역내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 협력기구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으로 구성됨.

- 과도한 보조금 및 유가하락 등으로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15.1%)과 비슷한 수준인 -14.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다만, 2017년에는 보조금 축소, 담배·주류·휘발유 가격 인상 등에 힘입어 동 비중이 -11%대 후반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국가경제가 여타 GCC 회원국들의 원유생산량과 국제경기 변동에 민감

- GCC 회원국들 중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이 가장 빈약함에 따라 여타 GCC 회원국들로부터 원유를 수입, 정제하여 수출하며, 또한 알루미늄 원광을 수입, 제련하여 수출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경제 전반이 주변국들의 원유생산량 및 국제경기 변동(석유 제품 및 알루미늄 제품의 수요 증감)에 크게 좌우되며, 주변국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 자국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크게 변동함.

나. 성장 잠재력

□ 금융, 교통, 관광 산업 육성으로 석유 의존도 감소

- 바레인은 GCC 회원국들 중 최소국(最小國)이자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이 가장 적음. 이에 정부는 비석유 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걸프 지역의 금융, 통신, 교통 등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공항, 항구, 통신 등 양호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금융, 교통 등의 분야에서 지역 내 허브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금융 분야에서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호텔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등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바레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80%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일 정도로 관광 분야의 성장잠재력도 큰 것으로 보임.

□ 세계 제10위의 알루미늄 생산국

- 바레인은 세계 제10위의 알루미늄 생산국임. 1968년 설립된 국영 알루미늄 생산기업인 바레인 알루미늄(Alba)은 연간 881만 톤으로, 단일 알루미늄 생산공장으로는 세계 5위 규모임. 2019년 공장 증설로 생산능력이 1,320만 톤으로 확대될 예정임.
 - Alba는 GCC 회원국 중 Dubai Aluminum(1,386만 톤) 다음으로 큰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알루미늄 생산량의 48%를 수출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탈 석유화 정책 추진으로 실질적 성과

- 바레인 정부는 석유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 관광 등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 왔음.

-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역내의 금융, 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업은 단일 산업으로는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탈 석유화 정책의 추진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2015-18년) 추진

- 정부는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에 따라 치안 강화, 교육·보건 환경 개선, 사회 인프라(상하수도, 주택공급 등) 확충, 재정수지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정부 세력의 잇따른 시위(테러), 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등으로 추진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음.

3. 대외거래

□ 국제유가 및 알루미늄 가격 하락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바레인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원유 및 정유제품의 수출단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2016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4.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7년에는 감산에 따른 유가의 상대적 안정 등에 따라 적자규모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알루미늄의 수출가격도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국제수요 부진으로 2016년에 대폭 하락하여 (2011년 대비 33% 하락) 경상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경상적자로 외환보유액 감소, 각종 프로젝트 추진으로 외채규모 증가

- 2011년 이후 외채상환능력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6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77.8%를 기록하는 한편, 외환보유액은 전년대비 18.5% 급감한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추세는 경상수지 적자 증가 및 고정환율제로 인해 2017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석유·제조업 관련 프로젝트 추진과 사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해외 차입으로 외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동성 위기 발생시 GCC 회원국들(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 가능성이 높아 채무상환 불이행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o	2017 ^f
경 상 수 지	2,560	1,124	-752	-1,447	-1,284
경 상 수 지 / G D P	7.9	3.4	-2.4	-4.6	-3.8
상 품 수 지	7,270	7,436	830	4,317	4,943
수 출	20,927	20,753	16,540	12,748	14,719
수 입	13,656	13,318	15,710	8,431	9,776
외 환 보 유 액	5,038	5,757	3,109	2,535	2,636
총 외 채 잔 액	17,908	19,557	20,043	24,488	27,534
총 외 채 잔액 / G D P	55.0	58.4	64.0	77.8	81.2
D. S. R.	6.9	9.7	6.3	9.4	9.4

자료: IMF, IFS, OECD 및 EIU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Al-Khalifa 가문의 장기 통치체제 및 권력 독점

- 현 왕실 Al-Khalifa 가문이 1783년 페르시아 세력을 축출한 이래 200년 이상 바레인을 통치해 오고 있으며, 국왕은 강력한 친정체제를 바탕으로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왔음.
- 국왕의 삼촌인 Khalifa bin Salman 총리는 1971년 이래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여타 GCC 왕정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왕실이 내무, 재무, 외교 등 내각의 주요 장관직을 독점하여 왔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왕실은 수니파, 국민의 다수는 시아파로 사회불안 지속

- 수니파인 왕실이 정치적·경제적 권력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음. 왕실은 권력 유지를 위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인 시아파를 억압하고 있으며, 종파 간의 사회·정치적* 불평등으로 사회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의회 의석(40석)은 수니파 58%, 시아파 35% 등으로 구성됨.

- 또한, 정부가 수니파 국민 수를 확대하기 위해 아랍 각국과 파키스탄의 수니파 주민들을 바레인 국민으로 귀화시키는 이민정책을 추진하여 시아파의 불만을 초래함.

□ 반정부 시아파 세력에 대한 탄압 강화

- 바레인 정부는 반정부 세력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테러(시위)에 가담한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2017년 1월 헌법을 개정하였으며, 테러(시위) 가담자들에 대해 국적 박탈, 강제 추방, 사형 집행 등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숙청 정국을 지속하여 사회불안의 악화가 우려됨.
- 아울러 바레인 정부는 2016년 중 공공요금·취발유·기호식품 가격 인상과 보조금 축소에 이어 2018년 부가가치세(잠정세율 5%)를 도입할 계획으로, 국민 다수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 불만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음.

2. 국제 관계

□ GCC 회원국들과는 긴밀한 관계 유지

- 바레인은 주변 GCC 국가에 경제적 안정 및 치안을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GCC의 최대 경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 GCC는 2011년 3월 10일 바레인과 오만에 인프라 개발과 주택 건설을 위해 2012년까지 10년 동안 각각 100억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바레인은 걸프 지역에서 대형 군함을 정박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환경을 보유한 군사적 요충지로, 서방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 미국은 현재 바레인에 5개 해군기지를 두고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해 있으며, 영국도 바레인에 해군기지를 신설할 예정임.

- 미국은 2002년 바레인을 중요한 NATO 비회원 동맹국(major non-NATO ally)으로 지정하고 2004년 7월 바레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미국의 외교정책 동향 등이 바레인의 외교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란과의 외교관계 중단 상태

- 1970~80년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은 바레인 내 시아파가 여러 차례 왕정 전복을 기도한 바 있으며, 이란의 Ahmadinejad 대통령 집권 시기(2005~13년) 동안 강화된 핵개발 활동으로 양국 간 긴장관계가 지속되어 왔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은 2016년 상반기에 이란이 자국 내 시아파 세력의 테러(시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란과 외교관계 단절은 물론 교역, 여행, 민간교류 등도 전면 중단하였음.
 - 그러나 최근 이란의 Rouhani 대통령이 오만과 쿠웨이트를 방문하는 등 수니파 왕정 국가들인 GCC 국가들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며 관계 정상화의 가능성이 기대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황태도

□ 외채상황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

- 정부의 석유·가스·제조업 관련 프로젝트 추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차입 등으로 외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위기발생시 GCC 국가들의 재정적 지원이 예상되어 채무상환 불이행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2016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대 바레인 ECA 인수승인 잔액은 총 18.1억 달러(중장기 17.7억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없음.
- OECD CRAM(Country Risk Assessment Model)의 ECA 거래실적에 대한 모델등급이 0등급으로 최상위 수준임.

2. 국제시장평가

□ 국제신용평가 3社は 쌍둥이 적자 등에 따라 바레인의 신용등급 강등

- 국제신용평가 3사는 외환보유고 감소, 쌍둥이 적자, 사회적 불안 등을 이유로 2016년 중 바레인의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강등하였음.
- OECD는 2011년 바레인의 신용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조정 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OECD 국가신용도 평가회의에서도 4등급으로 결정되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4등급 (2017. 1.)	4등급 (2016. 1.)
S&P	BB-(Stable) (2016.12.)	BB(Stable) (2016. 2.)
Moody's	Ba2(Negative) (2016. 5.)	Ba1(Negative) (2016. 3.)
Fitch	BB+(Stable) (2017. 2.)	BB+(Stable) (2016. 6.)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76. 4. 17 (북한과는 2001. 5. 23 수교)

□ 주요협정 : 통상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1984), 문화협정(1987), 이종과 세방지 및 탈세예방협약(2012), 경제통상/기술훈련협력 협정 (2013), 한-바레인 협력 공동위 설립(2015)

□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 바레인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6년 12월말 기준 14건, 1.3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임.

□ 교역규모 및 주요 프로젝트

- 2016년 대 바레인 교역규모는 4.3억 달러임. 수출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 1.8억 달러, 수입은 석유제품, 알루미늄 등 2.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우리 기업들의 바레인 내 주요 프로젝트는 무하라크 하수처리장(2011년), 마나마 인근 LNG 해상 인수터미널(2015년), 의료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7년) 등임.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시트라 정유고도화 프로젝트(50억 달러 규모)에도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됨.

〈표 4〉 한·바레인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주요품목
수 출	234	275	187	180	자동차, 전선, 전자제품 등
수 입	599	616	499	248	석유제품, 알루미늄 등
합 계	833	891	686	428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바레인의 2016년 중 경제성장률은 국제유가 하락, 원자재(알루미늄) 가격 하락, 종파 간 갈등에 따른 관광 수입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2.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2016년 이후 공공요금 인상, 보조금 축소, 담배·주류·휘발유 가격 인상, 부가가치세 도입(2018년 예정) 등을 단행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석유·가스·제조업 관련 프로젝트 추진과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차입 등으로 외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위기발생시 GCC 국가들의 지원이 예상되어 채무상환 불이행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사회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요금 인상, 보조금 축소, 부가가치세 도입 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증폭되어 반정부 세력의 테러(시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책임조사역 문성국 (☎02-6255-5720)

E-mail: sgmoon@koreaexim.go.kr